

한복의 치수 설정에 관한 연구(I)

(韓服의 치수 設定에 관한 研究)

- 여자저고리를 중심(中心)으로 -

李 柱 媛

<崇義女子專門大學 助教授>

目 次

- I. 序言
- II. 치수 設定을 위한 道具
 - 1. 尺度의 起源
 - 2. 우리나라 尺度의 發達
 - 1) 우리나라의 尺度
 - 2) 在來의 裁縫用 치수 設定 道具
- III. 치수 設定을 위한 名稱 分析
- IV. 치수 設定을 위한 身體치수
- V. 치수 設定 方法의 相關性
 - 1. 치수 設定에 있어서의 相關關係
 - 2. 치수 設定에 있어서의 變化要因
- VI. 結語
- 參考文獻

I. 서 언(序 言)

한복(韓服)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民族)이 고대(古代)로부터 착용(着用)해 온 고유(固有)한 옷이며, 우리의 기후풍토(氣候風土)와 생활양식(生活樣式)에 알맞게 정착된 민족의상(民族衣裳)이다. 이러한 한복(韓服)은 길이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함은 우리 모두의 의무(義務)이며 책임(責任)이다. 근래(近來)에는 한복(韓服)에 대한 연구(研究)가 여러 학자(學者)들에 의해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복(韓服) 연구(研究)의 다양(多樣)한 양상(樣相)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研究)의 대부분은 복식사적(服飾史的) 연구(研究)이고 그외 분야(分野)의 연구(研究)는 극히 찾아보기 힘든 실정(實情)이다.

본고(本稿)가 의도하는 바는 한복(韓服)의 구성학적(構成學的) 연구(研究)를 시도(試圖)하여 한복(韓服) 연구(研究)를 체계화(體系化)시켜 보려는데에 있다. 이를 위한 기초단계(基礎段階)로서 한복(韓服)의 치수 설정(設定)에 관해 연구(研究)해 보고자 하며, 이의 지속적(持續的)인 연구(研究)를 위한 선행연구(先行研究)로 우선 본고(本稿)에서는 치수 설정(設定)을 위한 도구(道具), 명칭(名稱), 신체(身體)치수 등을 다루고 아울러 치수 설정(設定) 방법(方法)의 상관성(相關性)에 대해서도 언급(言及)하려 한다.

본고(本稿)의 내용은 여자 저고리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여자 저고리에서 수치변화(數值變化)가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치수 설정(設定) 방법(方法)의 상관성(相關性)에 관한 연구(研究)를 위해서는 조선조 출토 유물 관계 연구(朝鮮

朝 出土 遺物 關係 研究)¹⁾에 사용된 수치(數值)를 자료로 이용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II. 치수 설정(設定)을 위한 도구(道具)

1. 척도(尺度)의 기원(起源)

원시시대(原始時代)부터 인간은 어떠한 물건의 대소장단(大小長短)을 측정(測定)할 수 있고 그 물건의 크기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척도(尺度)의 단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척도(尺度)의 단위는 항상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변화가 적고 표현에 있어서 직접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체(人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시대(上古時代) 사람들은 인체(人體)의 지장(指長), 수장(手長), 주장(肘長), 심장(尋長), 족장(足長) 및 신장(身長) 등을 척도(尺度)의 단위로 삼아서 사용해 왔음은 세계의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²⁾ 여기에서 특히 심장(尋長)은 두 팔을 잔뜩 펴서 벌린 길이를 말한다.

동양(東洋)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사용한 척도(尺度)의 단위는 인체(人體)를 이용한 것이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즉, 사기(史記)에는 「성위율 신위도(聲爲律 身爲度)」³⁾라 하여 중국고대음악(中國古代音樂)의 기본음(基本音)의 높이인 음률(音律)의 표준을 사람의 음성(音聲)으로 하였으며,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지(咫), 중부인수장(中婦人手長), 팔촌위지(八寸謂之), 지주척야(咫周尺也)」⁴⁾라하여 지(咫)는 중부인(中婦人)의 손길이며 주척(周尺)으로 팔촌(八寸)이라고 하였다. 또한 공자(孔子)의 가언(家言)에도 「포지지촌(布指知寸), 포수지척(布手知尺), 서주지심(舒肘知尋)」이라 말이 있어 이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고, 서구(西歐)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피트(feet)라는 척도(尺度)도 역시 그 기준이 인체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략적(大略的)으로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한뼘(手長), 한길(身長), 한팔(肘長), 한발(尋長) 등의 단위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대시대(古代時代)에 인체(人體)를 이용한 척도(尺度)가 사용되었던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吾州衍文長箋散稿)에도 옷을 만들기 위해 치수를 잴 때에는 편이상 중지(中指)이 일절(一節)을 일촌(一寸)이라 하고 겨드랑이에서부터 중지(中指)의 끝까지를 일척(一尺)이라 하는 등 신체(身體)의 일부(一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⁵⁾고 하는 기록이 있으며, 중지(中指)의 중절(中節)을 일촌(一寸)으로 잡고 만든 지척(指尺)이 있었다는 것을 보아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원래 자의 한자(漢字)인 「척(尺)」 그 자체도 손을 펼쳐서 물건의 길이를 재는 형상에서 온 상형문자(象形文字)로서 손을 펼쳤을 때의 엄지 손가락 끝에서부터 중지(中指) 끝까지의 길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척(尺)」이란 문자(文字)의 발생 당시에는 대략 18cm 전후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⁶⁾ 그러나 이러한 치수는 일정하지는 못하여 매우 불편했을 것이

1) 參考文獻 中 1), 3), 5), 8), 10), 18), 20), 27).

2) 尹張燮, 韓國의 營造尺度

3) 史記, 卷2, 夏本紀初

4) 許慎, 說文解字

5) 李圭景, 吾州衍文長箋散稿 卷49, 指尺辨證說

6)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므로 그 후에 이러한 척도단위(尺度單位)가 점차적으로 정비되어서 중국(中國)에서는 진한 시대(秦漢時代)에 이르러 처음으로 도량형제도(度量衡制度)가 완비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낙랑시대(樂浪時代)부터 중국(中國)의 이 제도가 전래되어⁷⁾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척도(尺度)의 표본인 「자」가 정해지게 된 것이라 하겠다.

2. 우리나라 척도(尺度)의 발달(發達)

1) 우리나라의 척도(尺度)

우리나라에서 고대(古代)로부터 사용해온 척도(尺度)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용도(用途)에 따라서 편이상 황종척(黃鍾尺), 영조척(營造尺), 포백척(布帛尺), 양전척(量田尺)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황종척(黃鍾尺)은 음악(音樂)의 음율(音律)을 고정(固定)하는 기준으로 사용된 계측(計測)의 단위로서 역대도량형제도(歷代度量衡制度)의 기본이 된 척도(尺度)이고, 영조척(營造尺)은 건축(建築)의 목공(木工), 조차(造車) 및 조선(造船)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상용(常用)된 척도(尺度)이다. 그리고 포백척(布帛尺)은 재봉용(裁縫用)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정척(法定尺)이 아니고 민간(民間)에 통용(通用)된 척도(尺度)이며, 양전척(量田尺)은 양전(量田)을 하고 이정(里程)을 계측(計測)하는 데에 사용된 척도(尺度)이다.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고신라시대(古新羅時代)에는 고려척(高麗尺)이 사용되었는데 고려척(高麗尺)은 고대(古代)에 사용되었던 가장 긴 장척(長尺)의 영조척(營造尺)이었으며, 신라시대(新羅時代)부터 근세(近世)에 이르기까지 양전척(量田尺)으로 사용되었던 주척(周尺)은 고대중국(古代中國)의 주(周)나라에서 남자의 수장(手長) 19.9cm를 1척(尺)으로 하여 만들어진 이후 계속 교정(校正)되면서 사용되어진 것이다.⁸⁾ 조선조(朝鮮朝) 초기(初期)에 와서는 중국(中國) 명(明)나라에서 영조척(營造尺)으로 사용되고 있던 당대척(唐大尺)과 길이가 꼭 같은 척(尺)이 영조척(營造尺)이란 명칭으로 사용되었다.⁹⁾

그러다가 세종(世宗) 7년에는 황종척(黃鍾尺)을 만들어 주척(周尺)과 함께 척도(尺度)의 기본으로 제정(制定)함으로써¹⁰⁾ 우리나라의 도량형제도(度量衡制度)를 처음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조선조시대(朝鮮朝時代)의 척도(尺度)에는 십진법(十進法)을 쓰고 분(分)을 중심으로 10분(分)을 1촌(寸), 10촌(寸)을 1척(尺), 10척(尺)을 10장(丈)이라 했고, 자의 눈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10분(分)을 1리(釐), 1/10리(釐)를 10호(毫), 1/10호(毫)를 1초(秒)라 하고, 1/10초(秒)를 1홀(忽)이라 했다고¹¹⁾한다.

2) 재래(在來)의 재봉용(裁縫用) 치수 설정 도구(設定 道具)

① 포백척(布帛尺)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척도(尺度) 중에서 포백척(布帛尺)은 재봉용(裁縫用)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포백척(布帛尺)에 대해서만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기로 한다.

포백척(布帛尺)은 중국(中國)에서는 속칭 재척(裁尺)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포백척(布帛尺)을 사용한 것은 이미 오랜 옛날부터 시작되었고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와 세종(世

7) 尹張燮, 前揭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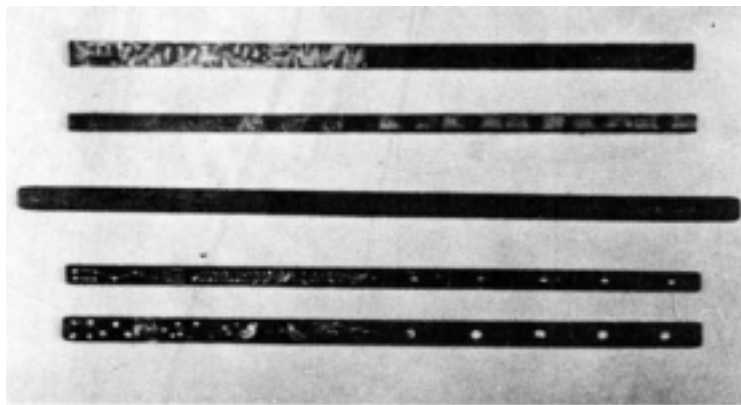
8) 尹張燮, 前揭書

9) 尹興秀, 李朝尺度에 관한 研究

10) 增補文獻備考 卷90, 樂考 2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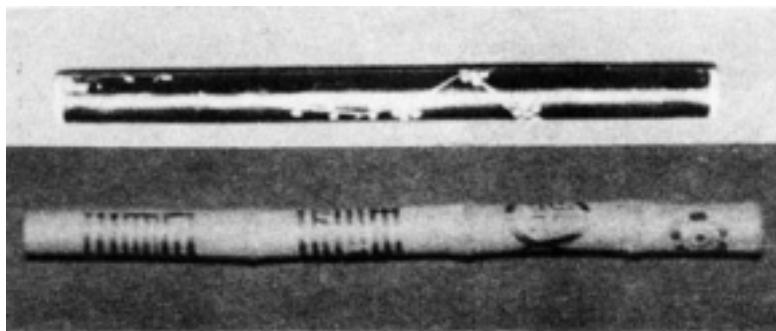
11) 李圭景, 前揭書 卷12

宗) 13년에 그것을 교정통일(校正統一)한¹²⁾ 것이라 하겠다. 조선조화폐고(朝鮮朝貨幣考)에서도 보면 포백천(布帛尺)은 세종(世宗)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상고시대(上古時代)부터 이미 존재했을 것이며 그 이후 신라(新羅),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포백천(布帛尺)이 사용되었던 것으로¹³⁾ 추정하고 있다. 이 포백천(布帛尺)은 민간(民間)에 통용(通用)된 것이어서 법정척(法程尺)이 아니므로 시대에 따라거나 지방에 따라서 길이의 증감(增減)이 많았으며 근거가 비교적 불확실하고 문란해져서 장단(長短)의 차이가 많다. 우리나라의 포백천(布帛尺)은 세종(世宗) 때 46.73cm, 영조(英祖) 때 51.41~49.08cm였으며, 광무(光武) 6년에는 51.5cm¹⁴⁾ 일제(日帝) 때는 56.43~51.27cm¹⁵⁾로 변했다고 한다. 그런데 창덕궁(昌德宮)에 소장되어 있는 5개의 홍색(紅色) 화각척(華角尺)으로 1尺의 길이가 52.3cm로 되어 있으며,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사각봉형(四角棒形) 건륭육년(建隆六年) 기명(記銘) 영조척(營造尺)의 한 면에 은상감(銀象嵌)으로 표시되어 있는 송삼사포백척(宋三司布帛尺)의 예를 보아 비단을 재는 데에는 단척(短尺)을 사용했고 무명을 재는 데에는 장척(長尺)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두가지가 모두 혼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진1>은 포백척(布帛尺)의 실물(實物)로서 목척(木尺), 화각척(華角尺), 나전칠척(螺鈿漆尺)이다.



<사진 1> 布帛尺

<사진 1> 포백척(布帛尺)



<사진 2> 누비밀대

<사진 2> 누비밀대

12) 世宗實錄 卷52, 5張

13) 柳子厚, 朝鮮貨幣考

14) 朴興秀, 前掲書

15) 藤田元春, 尺度綜攷

② 누비밀대

누비란 두겹의 피륙 사이에 솜을 넣거나 또는 솜을 넣지 않고 피륙만 두겹 이상 겹쳐서 줄줄이 흠질하는 바느질법의 하나로 피륙의 보강(補強)과 보온(保溫)을 위하는 목적이지만 부드러운 촉감(觸感)과 특유(特有)한 문양(文樣)이 이루는 장식성(裝飾性)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조(朝鮮朝) 초기(初期)의 유물(遺物)에서 누비옷을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치마·저고리·바지·포(袍)·두의(頭衣)·버선·대(帶) 등의 옷가지와 침구(寢具), 보(襪)에 이르기까지 누비가 다양하게 쓰였다. 누비의 기법(技法)은 누비의 문양(紋樣)에 따라 줄누비, 잔누비, 오목누비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잔누비는 흠질하는 줄의 간격이 1mm정도인 것도 있어 정교(精巧)하기가 이를 데 없으니 상당한 기술(技術)을 요(要)하는 바느질법(法)임에 틀림없다.

누비를 할 때에는 용도(用途)에 따라 누비줄의 간격을 적당히 조절(調節)하여 보통 옷감은 잘게, 이불은 굵게 누웠는데¹⁶⁾, 누비줄의 폭(幅)의 치수 설정(設定)을 위해서는 피륙의 울을 2올 또는 3올씩 울을 세어 가는 방법이 가장 흔히 이용되었으나 종이로 본을 떠서 쓰기는 했으며, 특히 피륙이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누비밀대를 보조구(補助具)로 쓰기도 했다. 이것은 지름 1.5~2cm, 길이 20~25cm 정도의 둥근 막대로 재료(材料)는 대부분 나무이며 그 위에 나전(螺鈿)이나 화각(華角)으로 장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굵기가 일정(一定)한 가느다란 대나무로 만들기도 했다. 이것을 누비질한 피륙 밑에 받쳐 놓게 되면 안팎감이 서로 밀리지 않아 매우 정교(精巧)한 바느질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사진2>는 목재(木材)와 죽재(竹材)의 누비밀대이다.

III. 치수 설정(設定)을 위한 명칭(名稱) 분석(分析)

한복(韓服)은 우리 민족이 고대(古代)로부터 착용해 온 고유한 옷으로서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기후풍토(氣候風土)와 생활양식(生活樣式)에 알맞게 정착(定着)한 특유한 민족의상(民族衣裳)이다. 그 중에서도 저고리는 상의(上衣)로 통칭(通稱)되는 옷이며, 여러 옷 중에서도 가장 중요(重要)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가장 기본(基本)이 되는 옷이다. 근래에도 저고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고 착용해 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저고리의 명칭(名稱)조차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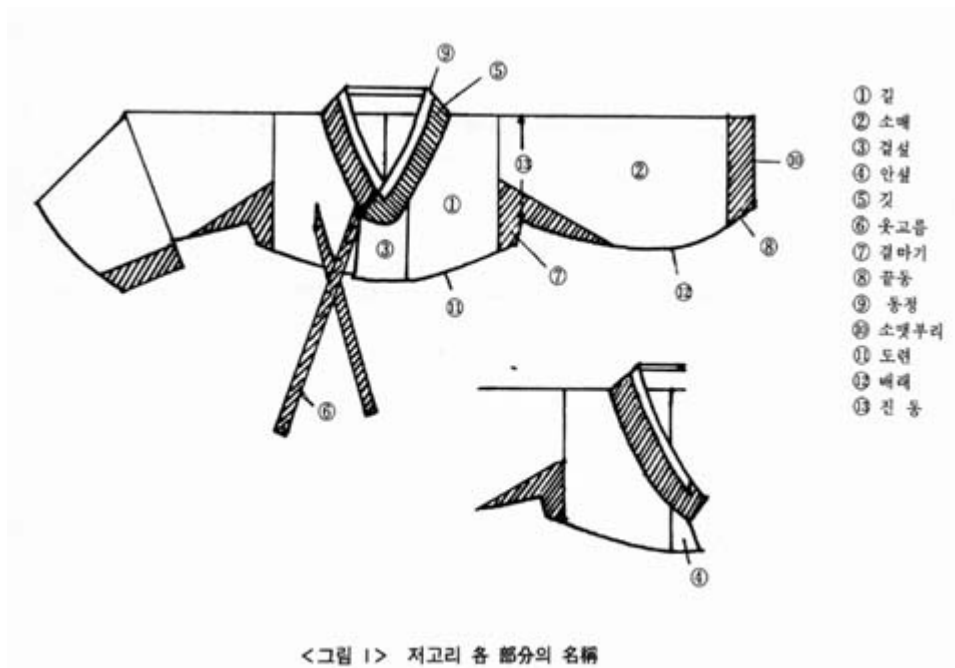
저고리의 명칭(名稱)은 저고리를 구성(構成)하고 있는 각 부분(部分)을 일컫는 부분 명칭(部分 名稱)과 그 부분의 치수를 나타내는 치수 명칭(名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저고리의 치수 설정(設定)을 위해 치수 명칭(名稱)을 구체적으로 분석(分析)해 보려 하며,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분 명칭(部分 名稱)도 함께 다루어보고자 한다.

저고리의 각 부분(部分)을 말하는 부분 명칭(部分 名稱)에는 <그림1>과 같이 길(胴), 소매(袖), 섯(衿), 깃(衿·領), 옷고름(古音), 동정(同領), 결마기(袂隔音), 끝동(袖音) 등이 있으며 여기에 선(線)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진동, 소매부리(袖口), 도련, 배래 등이 속한다. 그리고 각 부분(部分)의 치수 명칭(名稱)에는 <그림2>와 같이 길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고리길이, 화장, 섯길이, 깃길이, 옷고름길이, 동정길이 등이 있고 폭(幅)을 나타내는 것으로 품, 소매나

16) 石宙善, 韓國服飾史

비, 쏘나비, 깃나비, 옷고름나비, 동정나비 등이 있으며, 진동, 소맷부리, 고대 등은 부분 명칭(部分名稱)이면서 치수를 말할 때에는 같이 쓰여지고 있다.¹⁷⁾ 이와같이 치수들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저고리 변천양식(變遷樣式)의 중요한 요소(要素)가 된다고 하겠다. 치수 명칭(名稱)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길
- ②소매
- ③결섶
- ④안섶
- ⑤깃
- ⑥옷고름
- ⑦결마기
- ⑧끝둥
- ⑨동정
- ⑩소맷부리
- ⑪도련
- ⑫배래
- ⑬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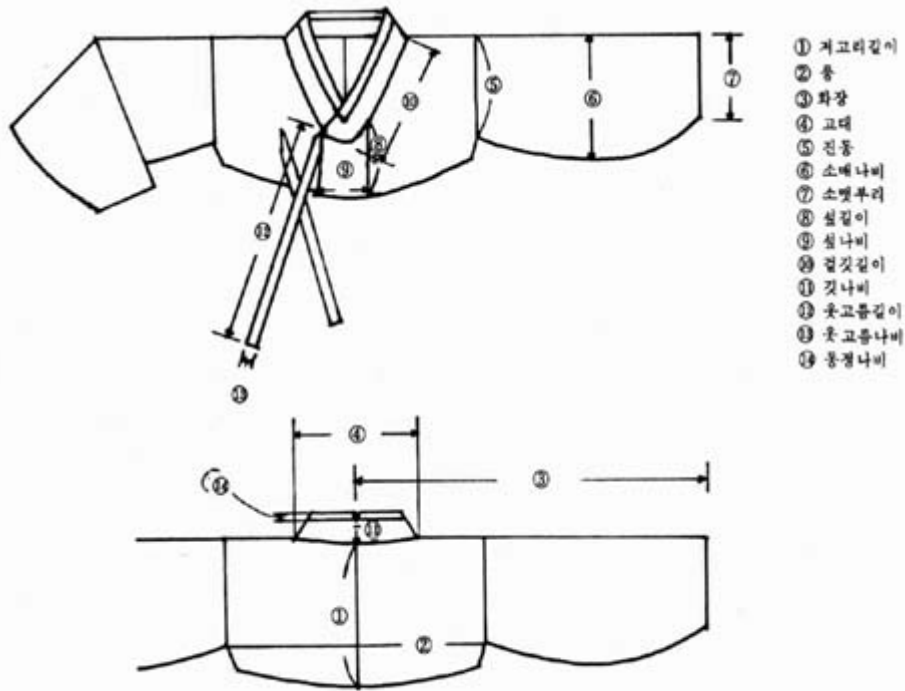


<그림 1> 저고리 각 부분의 명칭(저고리 各部分의名稱)

- ①저고리길이
- ②품
- ③화장
- ④고대
- ⑤진동
- ⑥소매나비

17) 이주원, 한복구성학

- ⑦소맷부리
- ⑧섷길이
- ⑨섷나비
- ⑩겉깃길이
- ⑪깃나비
- ⑫웃고름길이
- ⑬웃고름나비
- ⑭동정나비



<그림 2> 저고리 各 部分의 치수 名稱

<그림 2> 저고리 各 部分의 치수 명칭(저고리 各 部分의 치수 名稱)

1) 저고리길이 : 저고리의 뒷중심 고대 바로 밑에서 뒷도련까지의 수직(垂直) 길이로서 이것은 곧 등솔기의 길이가 된다. 그러므로 사실상 저고리길이는 저고리의 뒷길 길이라고 하겠으며 저고리의 앞길 길이와는 동일(同一)하지 않다. 이 저고리길이에 따라 「길다」 「짧다」 등으로 표현되어진다.

2) 품 : 저고리의 양쪽 진동선 밑 사이의 직선(直線) 거리를 말하며 뒷길쪽에서 재기 때문에 보통 「뒷품」이라고 한다. 이것은 곧 뒷길나비가 되며, 이 치수에 따라 저고리 품이 「작다」 「크다」 「맞다」 등으로 표현되어진다.

3) 화장 : 저고리의 뒷중심 고대 바로 밑에서 소매 끝까지의 직선(直線)거리를 말한다. 따라서 화장은 사실상 소매길이에 품이 반(半)이 가(加)해진 치수가 되는 것이다. 이 치수에 따라 저고리화장이 「길다」 「짧다」, 또는 저고리 소매가 「길다」 「짧다」 등으로 표현되어진다.

4) 고대 : 고대는 저고리의 깃을 달 때 목 뒤로 돌아가는 뒷부분을 가리키는 부분 명칭

(部分 名稱)이기도 하지만 고대 부분이 달려진 양끝짐, 즉 양쪽 어깨솔기와 깃이 만나는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깃고대라고도 하며, 이 치수에 따라 고대가 「좁다」 「넓다」 등으로 표현되어 진다.

5) 진동 : 저고리의 겨드랑이 밑에서 어깨선에 수직(垂直)으로 썸 길이를 말한다. 이것은 요즈음의 저고리 구성법(構成法)에서 볼 때 길과 소매의 봉합선(縫合線)의 길이가 되지만 실제로는 이 선의 앞 뒤 전체 길이가 아니라 소매가 ㅅ으로 접혀짐에 따라 한쪽면에 나타나는 선의 길이가 된다. 그러나 진동의 치수가 항상 길과 소매의 봉합선(縫合線)의 길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성면(構成面)에서 볼 때 봉합선(縫合線)의 위치가 항상 겨드랑이 밑을 지나야 하는 것도 아니며, 봉합선(縫合線)이 항상 직선(直線)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치수에 따라 진동이 「좁다」 「넓다」 등으로 표현되어진다.

6) 소매나비 : 소매의 길이방향으로 나타나는 접힘선에서 배래선의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까지의 수직(垂直)거리를 말한다. 일상적으로 「소매통」이라고 하지만 원래 소매통(筒)이란 ‘소매 속의 넓이’란 뜻과 ‘소매의 앞 뒤 전체 둘레나 굴기’란 뜻을 의미하게 되므로 소매나비와는 다르다. 이 치수에 따라 소매나비가 「좁다」 「넓다」 등으로 표현되어진다.

7) 소매부리 : 소매부리는 일상적으로 「부리」라고 하며, 소매의 아귀부분을 가리키는 부분 명칭(部分 名稱)이기도 하면서 그 부분의 치수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치수는 소매끝선의 길이인데 진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매끝선의 전체 둘레가 아니라 소매가 접혀진 상태에서 한쪽 선의 길이가 된다. 이 치수에 따라 부리가 「좁다」 「넓다」 등으로 표현되어진다.

8) 섯길리와 섯나비 : 섯은 저고리의 뒷폭보다 커야 하는 앞폭을 해결해 주기 위해 앞길에 붙이는 것으로 겹섯과 안섯이 있다. 그런데 겹섯과 안섯의 길이와 나비는 동일(同一)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구별(區別)된다. 섯길리는 섯의 가장 긴 부분의 직선(直線) 길이를 말하며, 섯나비는 섯의 폭(幅)을 수평(水平)으로 썸 직선(直線) 거리를 말한다. 그런데 섯나비는 상하가 다르므로 섯윗나비와 섯아랫나비로 구분(區分)하여 일컫기도 하나 일상적으로는 가장 넓은 섯아랫나비가 섯나비로 통용(通用)되고 있다. 이 치수에 따라 섯이 「길다」 「짧다」 또 「좁다」 「넓다」 등으로 표현되어진다.

9) 깃길리와 깃나비 : 깃은 목둘레에 돌려 대어 앞으로 여미는 부분으로 겹깃, 고대, 안깃의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즉 겹깃은 겹섯이 달리는 앞 원길과 접하는 부분을, 고대는 목뒤로 돌아가는 깃의 뒷부분을, 안깃은 안섯이 달리는 앞 오른길과 접하는 부분을 각각 가리킨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깃길리는 겹깃길리, 고대, 안깃길리를 모두 합한 길이가 되지만 일상적으로 겹깃길리만을 깃길리라 하기도 한다. 깃나비는 깃 폭(幅)의 치수로서 고대 가운데 부분에서 썸 수직(垂直)거리라 하겠다. 겹깃의 나비와 고대의 나비는 항상 동일(同一)하지만 안깃의 나비는 다를 수도 있다. 이 치수에 따라 깃이 「길다」 「짧다」 또는 「좁다」 「넓다」 등으로 표현되어진다.

10) 옷고름길리와 옷고름나비 : 옷고름은 보통 「고름」이라고 하며, 옷을 여며주는 실용적(實用的)인 역할 외에 장식적(裝飾的)인 역할도 해 준다. 옷고름은 다는 위치에 따라 겹옷고름과 안옷고름이 있고, 길이에 따라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이 있다. 옷고름의 형태(形態)에서 긴쪽의 직선(直線)길이는 옷고름길리가 되며, 길이와 수직(垂直)되는 거리가 옷고름나비가 된다.

11) 동정길리와 동정나비 : 동정은 깃의 목 주위에 덧붙이는 부분으로 과거에는 저고리에 동정이 없었으나 조선조(朝鮮朝) 중후기(中後期)에 들어와 달기 시작된 것임을 유물(遺物)에서 볼 수 있다. 동정의 끝은 뾰족한 예각을 이루고 있으므로 긴 부분의 길이로 동정길리로

정하고 동정나비는 동정 폭(幅)의 치수로 한다.

IV. 치수 설정(設定)을 위한 신체(身體)치수

원래 예전에는 새로 옷을 만들고자 할 때 주로 지난 번에 입던 옷을 기준으로 해서 그 치수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¹⁸⁾ 그러나 신체(身體)의 성장(成長)에 따라 크게 하거나 요즈음과 같이 기준으로 할 옷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고자 할 때에는 눈대중으로 어림 잡아 치수를 설정(設定)하는 것보다 착용자(着用者)의 신체(身體)에서 필요(必要)한 부위(部位)를 계측(計測)하여 정확한 치수를 구하게 된다.

저고리 각 부분의 치수 설정(設定)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고리길이, 품, 화장의 치수가 필요하게 된다. 기타의 치수는 이 치수에서 산출(算出)되어진다. 그러나 저고리길이는 신장(身長)에 따라 다르게 계측(計測)할 때에 적당한 기준점(基準點)이 없으므로 예전부터 등길이를 잰 후 적당하게 조절(調節)해 왔으며, 품도 가슴둘레를 잰 후 적당량(適當量)의 여유분을 가하여 산출(算出)해 왔다. 따라서 치수 설정(設定)을 위한 저고리의 신체(身體)치수는 등길이, 가슴둘레, 화장이라 하겠다. 참고로 이들의 현대식(現代式) 계측법(計測法)을 열거(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3> 등길이 計測法

<사진 3> 등길이 계측법(計測法)

18) 李柱媛,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衣生活篇) 第一章 京畿道地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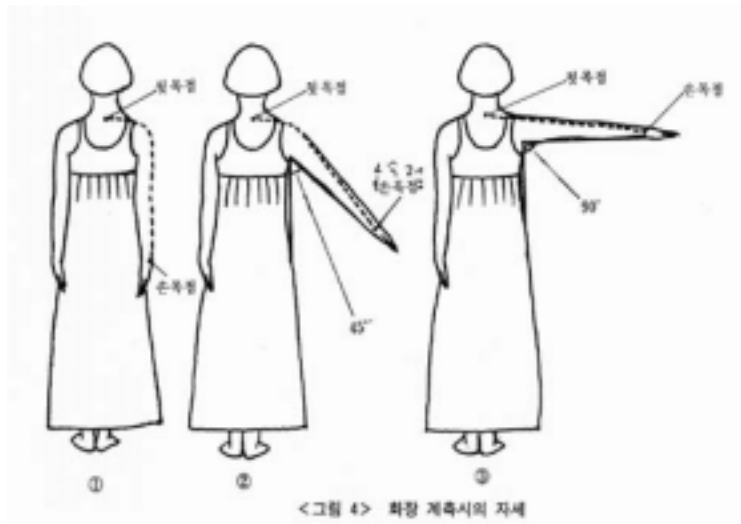
<사진 4> 윗가슴둘레 計測法

<사진 4> 윗가슴둘레 계측법(計測法)



<사진 5> 화장 計測法

<사진 5> 화장 계측법(計測法)



<그림 4> 화장 계측시의 자세

1) 등길이 : <사진3>과 같이 뒷목점에서 뒤희리 둘레선중심까지 직선(直線)으로 재는데 이 때 측면(側面)에서 보아 실제(實際)길이와 수직(垂直)길이와의 차이는 <그림3>과 같이 크므로 근육상태(筋肉狀態)를 잘 관찰하면서 약간 여유있게 내려 잰다. 여기에서 뒷목점은 고개를 숙였을 때 튀어나오는 일곱 번째 목 등뼈의 중심점으로 설정(設定)한다.

2) 가슴둘레 : 가슴둘레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유두(乳頭)를 지나는 가슴의 수평(水平)둘레를 말한다. 이 때 만일 유방(乳房)이 처진 경우에는 유두(乳頭)를 지나지 않더라도 가장 높은 곳을 돌려 재게 된다. 그러나 저고리에서는 옷고름이 매어지는 부분의 높이가 저고리 앞길의 중심을 이루게 되므로 품의 치수 설정(設定)을 위한 가슴둘레는 실제로 윗가슴둘레를 재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윗가슴둘레는 <사진 4>와 같이 겨드랑이 바로 밑의 가슴을 수평

(水平)으로 돌려 재며, 윗가슴의 근육(筋肉)이 늘려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약간 여유있게 재어야 한다.

3) <사진 5>와 같이 뒷목점에서 어깨끝점을 지나 손목점까지 자연스럽게 재는데, 이 때 주의할 것은 팔의 자세이다. <그림 4>와 같이 팔을 내린 채로 계측(計測)하는 방법(①) 팔을 45°각도로 들고 계측(計測)하는 방법(②) 저고리의 화장을 재는 것과 같이 팔을 90°각도로 들고 계측(計測)하는 방법(③)등이 있으나 계측자세(計測姿勢)에 따라 <표 1>과 같이 화장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므로 계측시(計測時)에 어느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 세가지 계측방법(計測方法)은 저고리 제작자(製作者)에 따라 혼용(混用)되고 있으나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팔을 45°각도로 들고 계측(計測)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이것은 팔을 내린 상태에서나 팔을 움직여 활동하는 상태에서 치수의 오차(誤差)가 가장 적기 때문이다.

<표 1> 계측자세에 따른 화장의 길이

(단위 :cm)

계측자세	화장의 평균치
팔을 내린 자세	72.3
팔을 45°각도로 든 자세	68.5
팔을 90°각도로 든 자세	64.6

※ 이 표의 수치는 성인 여자 175명을 대상으로 하여 얻은 것임

V. 치수 설정 방법(設定 方法)의 상관성(相關性)

근래(近來) 다수(多數)의 연구(研究)를 통해 저고리의 시대적(時代的) 형태변화(形態變化)에 대해서 충분한 고찰(考察)이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는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그 간(間)의 연구(研究)에서 얻어진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이용하여 한복(韓服)의 치수 설정방법(設定方法)의 상관성(相關性)을 분석(分析)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것은 조선조시대(朝鮮朝時代)의 여자 저고리를 중심으로하여 분석(分析)한 결과라 하겠다.

1. 치수 설정(設定)에 있어서의 상관관계(相關關係)

통계자료(統計資料)에서 얻어진 저고리 각 부위별(部位別) 수치(數値)를 분석(分析)해 보면 상호간(相互間)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많다. 물론 이 자료(資料)가 모두 동일인(同一人)이 아닌 다수인(多數人)의 저고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착용자(着用者)의 체형(體形)이나 취향(趣向), 또는 옷의 용도(用途)나 그 옷의 제작연도(製作年度)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같은 연대(年代)끼리의 평균치(平均値)를 참작하면 일관(一貫)된 시대적(時代的) 기준(基準)으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표 2>는 조선조시대(朝鮮朝時代) 여자 저고리의 부위별(部位別) 평균치(平均値)이며, 이것은 고복남(高福男)의 ‘한국의복(韓國衣服)의 유형(類型)과 양식(樣式)’에 실린 자료를 재정리(再整理)한 것임을 밝혀 둔다. 이 평균치(平均値)와 다른 통계수치(統計數値)을 함께 참고하여 분석(分析)해 본 결과 저고리 각 부위간(部位間)에 상관관계(相關關係)가 많은 것까지 묶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저고리길이와 품

저고리길이는 조선조(朝鮮朝) 전반에 걸쳐 가장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즉, 초기(初期)에는 남자 저고리 모양으로 길다가 점차적으로 짧아지게 되었고 후기(後期)로 오면서 급진적(急進的)으로 짧아지게 되었다. 품에 있었어도 점점 좁아지기는 했으나 길이와 비교할 때 단소율(短小率)은 동일(同一)하지 않다. 여기에서 저고리길이는 초기(初期)에 많이 길었었기 때문에 얼마동안 계속 짧아질 수 있지만 품이 좁아지는 것은 한계(限界)가 있기 때문에 길이와 같은 비율로 좁아질 수는 없다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저고리길이가 길수록 품은 넓어지고, 반대로 저고리길이가 짧을수록 품은 좁아진다는 상관관계(相關關係)를 이루게 된다.

<표 2> 조선조시대(朝鮮朝時代) 여자 저고리의 부위별(部位別) 평균치(平均値)

(단위 cm)

시대구분(時代區分) 저고리구분(區分)	초기(初期)	중기(中期)	후기(後期)
저 고 리 길 이	52.47	46.84	28.99
품	66.44	48.72	42.24
화 장	69.61	74.33	69.32
고 대	18.67	18.12	14.99
진 동	29.29	28.16	19.66
소 매 나 비	28.22	24.39	18.87
소 맷 부 리	27.30	20.42	12.71
실 길 이	25.68	31.78	16.34
실 나 비	13.31	19.37	8.41
깃 길 이	38.32	32.89	20.65
깃 나 비	12.36	10.21	5.87
옷 고 름 길 이	23.31	35.03	46.54
옷 고 름 나 비	1.87	2.10	3.61
등 정 나 비	5.47	4.93	2.36

2) 저고리길이와 깃길이

저고리길이의 변화율을 보면 초기(初期)에 비해 중기(中期)에 10.7%가 짧아졌고 중기(中期)에 비해 후기(後期)에 38.1%가 짧아졌다. 깃길이에 있어서도 초기(初期)보다 중기(中期)에 14.2% 짧아졌고 중기(中期)보다 후기(後期)에 37.2% 짧아졌다. 여기에서 보면 저고리길이와 깃길이의 변화율은 거의 비슷한 상관관계(相關關係)를 이루고 있다.

3) 깃길이와 깃나비

깃길이와 깃나비와의 비율을 보면 초기(初期)에는 깃길이가 깃나비의 3.1배, 중기(中期)에는 3.2배, 후기(後期)에는 3.5배로 나타났다. 즉 깃길이가 짧아질수록 깃나비가 좁아지고 상관관계(相關關係)속에서 깃길이에 대한 깃나비의 비율은 전시대(全時代)를 통하여 거의 비슷한 관계(關係)를 이루고 있다.

4) 저고리길이와 옷고름길이

저고리길이에 대한 옷고름길이의 배분율을 보면, 초기(初期)에는 44.4%로 저고리길이의 반(半)도 채 못 되었었으나 중기(中期)에 와서는 74.8%로 저고리길이의 4분의 3정도가 되다가 후기(後期)에 와서는 160.5%로 저고리길이의 1.5배보다 넘게 된다. 여기서 저고리길이가

짧아질수록 반대로 옷고름길이는 길어진다는 역상관관계(逆相關關係)를 알 수 있다.

5) 배래형과 소맷부리

소맷부리의 변화율은 저고리길이의 변화율보다도 훨씬 심한 정도를 보인다. 즉, 초기(初期)에 27.3cm이던 것이 후기(後期)에 와서는 12.71cm가 되었는데 이것은 중기(中期)로 오면서 74.8%가 좁아졌고 후기(後期)로 오면서 62.2%가 좁아진 수치(數値)가 된다. 이것은 배래형과 밀접한 상관관계(相關關係)를 이룬다. 즉, 초(初)·중기(中期)에는 직선형(直線形)소매이었기 때문에 소맷부리가 넓어 최고 31.0cm인 것도 있으나 후기(後期)로 가면서 배래가 곡선형(曲線形)으로 되자 심지어는 10.0cm까지 좁아진 것도 있었다.

6) 기타

그 외에는 저고리길이와 진동, 섯길이와 섯나비, 걸깃길이와 안깃길이, 걸섯나비와 안섯나비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相關關係)를 이루고 있다.

2. 치수 설정(設定)에 있어서의 변화요인(變化要因)

인간(人間)은 어느 시대(時代)를 막론하고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社會)의 풍토(風土)에 따라 문화(文化)가 변화(變化)하게 되고 문화(文化)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의복(衣服)은 자연히 변화(變化)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적(形態的) 변화(變化)는 곧 치수 설정(設定)에 변화(變化)가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저고리는 조선조중기(朝鮮朝中期)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변화(變化)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요인(變化要因)은 풍토적(風土的)인 영향¹⁹⁾, 경제적인 영향²⁰⁾등도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치 체제(政治 體制)의 영향일 것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도 보면 왕조(王朝)가 바뀌면 구제도(舊制度)는 되도록 고치고자 하는 것이 상례(常例)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왕실(王室)에서 새로운 형태(形態)의 저고리를 입게 되면 그 양식(樣式)이 서서히 서민(庶民)들에게까지 전수(傳授)되어지게 된다. 이것이 일정(一定)한 기간(期間)동안 정착(定着)된 후 다시 변화(變化)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곧 유행(流行)이며, 왕실(王室)은 유행(流行)의 모체(母體)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變化)속에서 착용자(着用者)들은 심리적(心理的)으로 쾌감(快感)을 느끼고 보다 새로운 변화(變化)를 추구(追求)하게 되므로 점차적으로 의복(衣服)의 변화(變化)는 더욱 구체화(具體化)한다고 하겠다.

VI. 결 어(結 語)

저고리는 한복(韓服)의 대명사(代名詞)로 한복(韓服)을 연구(研究)하려면 반드시 저고리의 연구(研究)가 선행(先行)되어야 한다. 본고(本稿)는 한복(韓服)에 관한 다각적(多角的)인 연구(研究)중의 하나로 구성학적(構成學的)인 면(面)에서의 치수 설정(設定)에 관해 살펴본 것이다. 치수 설정(設定)에 관해서도 여러 각도(角度)로 연구(研究)할 수 있겠으나 본고(本稿)는 그 선행연구(先行研究)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치수 설정(設定)을 위한 도구(道具)로서 우리나라의 척도(尺度)에 관해 다루어 보고 재봉

19) 李京子, 여자 저고리 小考

20) 金영숙, 18세기 여자저고리 옷길이 변화요인에 관한 고찰

용(裁縫用) 포백척(布帛尺)과 누비밀대를 조사해 보았으며, 치수 설정(設定)을 위한 명칭(名稱)을 부위별(部位別)로 자세히 분석(分析)해 보았다. 그리고 부위(部位) 간(間)의 상관성(相關性)에 관해서는 조선조(朝鮮朝) 여자 저고리의 실물 통계자료(實物 統計資料)를 이용하여 살펴 보았다.

결과를 볼 때 흠족(洽足)한 연구(研究)는 되지 못했으나 한복(韓服) 연구(研究)의 새로운 측면(側面)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意義)를 갖고 앞으로는 저고리 이외의 타(他) 의복(衣服) 연구(研究)뿐만 아니라 현재(現在)의 의복(衣服)에 이르기까지보다 체계적(體系的)인 연구(研究)를하여 한복(韓服) 연구(研究)의 폭(幅)을 넓히고자 한다.

참고문헌(參考文獻)

- 1) 高福男, 朝鮮時代 一般服飾의 研究, 淸州師大 論文集 9집, 1980.
- 2) 高福男, 出土服飾. 女服, 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 3) 高福男, 韓國衣服의 類型과 樣式, 集文堂, 1987.
- 4) 金東旭, 白衣民族 是非考, 저고리 是非考, 박물관신문, 1981
- 5) 金文子, 朝鮮時代 저고리 깃에 대한 研究, 服飾5號, 韓國服飾學會, 1981
- 6) 김영숙, 18세기 여자 저고리 옷길이 변화요인에 관한 고찰, 韓國衣類學會誌 9권 3호, 1985.
- 7)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 8) 박규미, 실물실측을 통한 여자 저고리 치수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1984.
- 9) 朴惠淑 譯, 被服構成學 理論篇, 耕春社, 1987.
- 10) 白錦鉉, 옷깃과 옷섶의 形態變化에 대한 研究, 服飾 6호, 韓國服飾學會, 1982.
- 11) 朴興洙, 李朝尺度에 關한 研究, 大東文化研究 4집. 성균관대, 1967.
- 12) 史記
- 13) 世宗實錄
- 14) 石宙善, 韓國服飾史, 寶晉齋
- 15) 樂學軌範
- 16) 柳子厚, 朝鮮貨幣考, 學藝社, 昭和15.
- 17)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82.
- 18) 柳喜卿, 저고리와 襯衣類, 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 19) 尹張燮, 韓國의 營造尺度, 大韓建築學會誌 19권 63호, 1975.
- 20) 李京子, 여자 저고리 小考, 대한가정학회지 8권, 1976.
- 21) 李圭景, 吾州衍文長箋散稿.
- 22) 이주원, 한국구성학, 경춘사, 1987.
- 23) 조효순, 조선조 후기 여성복식 개량 논의, 服飾4號, 1981.
- 24) 增補文獻備考.
- 25)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衣生活篇), 文化財管局, 1986.
- 26) 許慎, 說文解字
- 25) 황호영, 한국 여자 저고리 형태의 역사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7권, 1975.
- 26) 藤田元春, 尺度綜攷